



원주마을이야기 Since 2002 제167호



고운산봉도서관

Goun Sambong Library

삼봉민원센터

2026년 7월호

고운삼봉도서관에서 만나요

가다림 끝에 문을 연 고운삼봉도서관에서 저마다의 일상을 채워가는 이
웃들을 만났다. 개관식을 즐기는 아이들부터 신문 읽는 어르신, LP 음반
으로 특별한 휴식을 누리는 청년까지. 전 세대의 웃음이 머무는 이곳은
다정한 사랑방이다. 뜨거운 여름날, 책과 이야기 가득한 시원한 도서관
으로 피서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정면에서 바라 본 고운삼봉도서관 외관

- 삶의종경 비움 영암마을 남전자 이야기 ... 8-9P • 고씨네 별밤극장 현장 ... 10P
-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હે물 12-13P • 양생원과 열두 달 14P

개관하자마자 ‘핫플’ 등극 **고운삼봉도서관**

박물관 부럽지 않은 삼봉지구 문화 사랑방

삼봉지구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 속에 마침내 베일을 벗은 고운삼봉도서관이 7월 7일 개관식과 함께 정식 운영의 첫발을 내디뎠다.

뛰어난 시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의 탄생 소식에 개관 첫날부터 도서관을 향한 주민들의 발길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책의 세계로 풍덩 빠져든 개관일 풍경과 설렘 가득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 온 동네 들썩인 오감 만족 개관식 현장

정식 개관을 축하하는 박수소리와 함께 고운삼봉도서관의 문이 활짝 열리자, 내부는 금세 설렘으로 가득 찬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특히 1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진행된 ‘AI 초상화 체험’은 단연 이날의 최고 인기 코너였다. 신기한 체험을 해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렸다. 기다림 끝에 의자에 앉아 사진을 찍은 뒤, 로봇 볼펜이 스스로 움직이며 하얀 종이 위에 초상화를 그려지자 아이들의 눈이 동그해졌다. 곳곳에서 “이건 눈인가?”, “내 머리 모양이랑 조금 다른데?” 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딸 아린이와 함께 초상화 체험을 마친 김수미 씨는 “처음 들어왔을 때 공간이 탁 트여 있어 무척 쾌적했다”며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시설 좋은 도서관이 생겨 지역 전체에 활기가 도는 기분이 다. 아이가 더 크면 같이 책을 보러 매일 오고 싶다”며 만족해했다.

행사의 열기는 3층 문화강좌실로 이어졌다. 신나는 음악을 배경으로 화려한 풍선 공연이 시작되

자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아티스트의 재빠른 손길에 따라 풍선이 귀여운 인형, 멋진 모자와 칼, 거대한 문어로 변신할 때마다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공연의 박진감 넘치는 매력에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부모들까지 감탄하며 무대에 폭 빠져들었다. 도서관의 첫 출발을 알린 이날의 개관식은 온 동네 주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문화 축제가 되었다.

>> “마치 큰 박물관 같아요”

개관 후 이어지는 전 세대의 발길

성공적인 개관식 이후로도 고운삼봉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간을 즐겼다.

삼봉지구 중흥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미영(67) 씨는 친구 김미점(66) 씨와 함께 도서관 자료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전날 열린 개관식에도 참석했다는 두 사람은 “처음에는 동네 도서관이라 규모가 작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공간을 정말 세련되고 넓게 잘 꾸며놨다”며 “마치 커다란 박물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의 기대감도 남달랐다. 딸 채리아(4) 어린이와 함께 방문한 박아름(35) 씨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정말 마음에 든다. 앞으로 서가에 책이 더 채워지면 자주 찾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입소문을 듣고 전주에서 온 가족들도 있었다. 전주 화정초등학교에 다니는 전서윤·전서린 자매는 “개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 왔다”며

“임시 개관 때도 와봤는데 시설이 좋아 다시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책이 많아서 좋고, 평소 사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웠던 만화책을 마음껏 빌려볼 수 있어 좋다”고 웃었다.

곧 방학을 앞둔 지역 아이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삼례동초등학교에 다니는 박소미(11), 장하율(9), 조은우 어린이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보드게임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있었다. 아이들은 “도서관이 재미있어서 맨날 오고 싶다”며 환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지만, 고운삼봉도서관은 이미 주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적인 독서 공간을 넘어 이웃이 만나 서로 안부를 묻고,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이 여유를 누리는 ‘지역 공동체의 거실’로서 고운삼봉도서관이 만들어갈 다채로운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고운삼봉도서관



7월 7일 정식 개관한 고운삼봉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1층에는 삼봉민원센터와 커뮤니티 라운지, 2층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삼봉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 3층은 일반자료실과 문화강좌실, 4층은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행정 서비스부터 돌봄, 독서, 문화예술까지 한곳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개관식 이후 펼쳐진 신나는 풍선공연



주민들이 참여한 N행시 백일장



왼쪽부터 박소미, 장하율, 조은우 어린이



위_ 개관식 행사 중 하나인 AI 초상화 체험에 몰린 사람들
아래_ 개관하자마자 지역 핫플레이스가 된 도서관 내부



2층 어린이 자료실의 7월 북큐레이션



1층 커뮤니티라운지의 고운이음서가



AI가 그려준 초상화를 들고 웃는 모녀

정답보다 질문이 필요한 시대

고운이음서가 큐레이션에 참여한 고운향 씨

정보의 홍수와 AI가 몇 초 만에 정답을 제시하는 세상에서 오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고운향 씨는 “어떤 질문을 던질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AI 독서 파트너링’ 프롬프트 질문 연구로 시작해, 현재는 ‘인생에서 질문이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그를 만나 이번 전시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 관심사와 전시 기획 계기

시에 대체되지 않고, 오히려 AI를 동반자로 삼아 사고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좋을까?’, ‘어떤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사람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판단하고 정답만 제시하려고 하면 거기서 멈추지만, 서로 경청하고 좋은 질문을 주고받으면 훨씬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결국은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문느냐에 따라 대화의 깊이도, 관계의 온도도 달라지니까요. 육아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아닐까요? 저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 당신은 행복한 하루를 선택했나요?’라고 질문해요.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감정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질문’이라는 주제로 엮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 추천 도서에 대한 소개

‘질문하는 삶’을 주제로 아홉 권을 세 가지 시선으로 나눠 골랐어요. 첫째는 내 삶의 방향과 최고의 선택을 돕는 질문들이에요. 본질을 꿰뚫는 질문으로 삶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찾게 해주는 책들을 담았어요. 둘째는 관계를 살리는 질문들이에요. 질문 하나가 나와 타인의 관계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셋째는 함께 읽고 성장하며 미래를 키우는 질문들이에요. 책과 능동적으로 대화하는 즐거움, 그리고 아이에게 정답이 아닌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는 부모의 역할을 담고 싶었습니다.

Q. — 전시 방문객에게 전하는 말

전시된 책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며 지금 나와 타인에게 가장 필요한 진실한 질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문득 떠오른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뜻밖의 답이 될지도 몰라요. 그 소중한 마음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운향 씨의 서가_더 퀘스천: 질문하는 삶



내가 직접 채우는 첫 책장, 고운이음서가



자신이 추천하는 책으로 직접 한 칸 서가를 꾸며보는 전시 프로그램이다. 제1회 전시는 다섯 가지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7월 31일까지 1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전시1. 오윤지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들>
- 전시2. 김미경 <내가 사랑한 그림책 1탄>
- 전시3. 최윤희 <웹툰과 애니 전공들을 위하여>
- 전시4. 고운향 <더 퀘스천: 질문하는 삶>
- 전시5. 권은희 <일상이 예술이 될 때>

아이들이 책을 통해 쑥쑥 성장하길



삼봉공동육아나눔터 시니어 활동가 조순애 어르신

고운삼봉도서관 2층에 새 등지를 뜬 삼봉공동육아나눔터가 7월 6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를 함께 나누는 이웃 사랑방으로, 장난감과 도서 대여는 물론 부모 품앗이 모임, 아이들을 위한 요리·놀이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 이후 방문객들이 육아나눔터와 도서관을 한결 편하게 오가면서 육아나눔터는 책과 놀이,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4년 차 시니어 활동가 조순애(73) 어르신은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주들이 다 커버려 아쉬움이 컸다는 그에게 이곳은 매일 새로운 손주를 만나는 자리가 됐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랑 도서 정리를 주로 하죠. 하루에 많은 아이들이 오가는 공간이라서 청결과 안전이 제일이에요. 사용한 교구는 바로 깨끗하게 소독해서 다른 아이들이 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안전한 놀이 환경과 더불어 이용객들이 좋아하는 건 순애 어르신의 세심한 배려와 노하우다. 과거 보육 교사로 일했던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10년간 이어왔다. 이러한 내공을 살려 낮을 가리는 아이에게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보호자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구수한 입담으로 동화책을 읽어주곤 한다.

평소 책을 즐겨 읽었던 순애 어르신에게도 이번 육아나눔터의 이전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은퇴 후 바쁜 일상에서 멀어졌던 책과 물리적 거리가 좁혀진 만큼 다시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다짐했고, 최근에는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을 조금씩 읽고 있다. 그는 자신이 책과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듯, 이곳을 찾는 아이들도 책과 함께 마음의 키가 쑥쑥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를 듣고, 함께 책을 읽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가오는 여름 방학에도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아이들 손잡고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삼봉공동육아나눔터



- 주소_ 완주군 삼례읍 삼봉중앙로 55 고운삼봉도서관 2층
- 영업시간_ 평일 9:00~18:00
토요일 10:00~14:00 *일요일 휴무
- 문의_ 063-262-2698





나의 도서관 사용법

할머니와 함께 숫자책 읽는 시간

원하운 어린이

고운삼봉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만난 원하운(4) 양은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숫자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숫자를 따라 읽고, 그림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는 도서관이 아이에게 익숙한 놀이터가 된 듯했다.

하운 양 가족은 지난해 삼봉으로 이사 온 뒤부터 고운삼봉도서관을 자주 찾고 있다. 이전에는 전주 송천도서관을 이용했지만, 집 가까이에 새로운 도서관이 생기면서 어린이집 하원 후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는 날이 많아졌다. 집에서 가까워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하운 양의 어머니 이현지(32) 씨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게 조성돼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며 “다른 도서관에서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혹시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신경 쓰일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2층 전체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라 그런 부담이 훨씬 적고, 아이도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는 것은 하운 양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하운 양은 “할머니랑 같이 책 읽는 게 좋아요. 숫자책이 제일 재밌어요!”라며 활짝 웃었다. 숫자 책을 다 읽은 뒤에도 스스로 다음에 읽을 책을 찾아 책장을 둘러보는 모습에서 책과 도서관을 향한 즐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의 도서관 사용법

LP 한 장이 주는 특별한 휴식

용진 청년 전현아 씨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음악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책과 음악 사이에 머무는 시간’은 LP와 CD 플레이어를 갖춘 음악 감상실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다. 평일에는 최대 2시간, 주말에는 최대 1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어 개관 이후 이용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쯤, 퇴근 후 곧바로 도서관을 찾은 용진읍 청년 전현아(28) 씨도 그중 한 명이다. 평소 음악 감상을 취미로 즐기는 그는 고운삼봉도서관에 음악 감상 공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했다. 전 씨는 평소 LP에 관심이 많아 새로운 음반을 듣기 위해 전주의 LP 카페나 음악 감상실을 찾곤 했다. 하지만 시간을 내어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비용도 적지 않았다. 집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무료로 LP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점은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날 전 씨가 가장 먼저 선택한 음반은 영화 ‘시네마 천국(Cinema Paradiso)’의 OST. 현아 씨는 “평소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시네마 천국’인데, 영화 속 음악을 LP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에서 음원으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따뜻한 감성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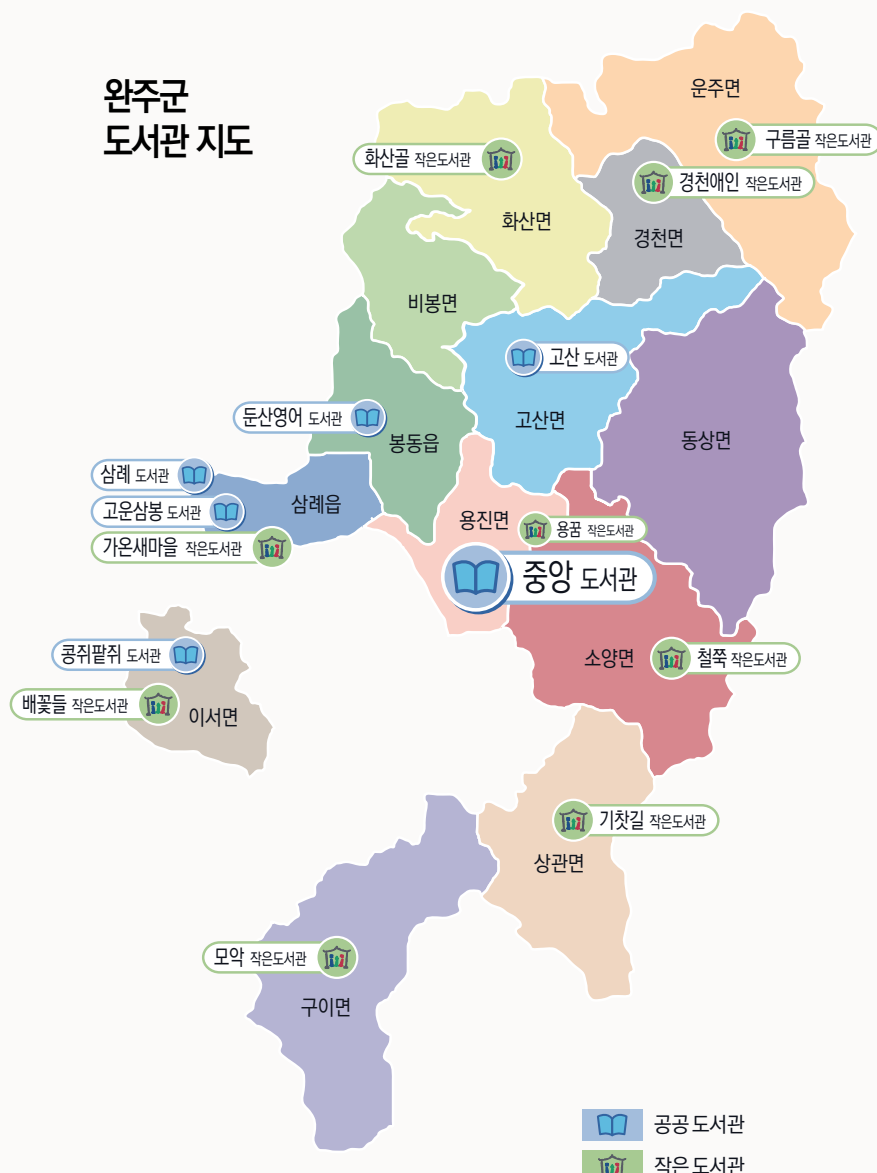
고운삼봉도서관의 ‘책과 음악 사이에 머무는 시간’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각자의 취향을 발견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름방학엔
도서관으로!

고운삼봉도서관에서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뜨거운 여름, 고운삼봉도서관이 마련한 특별한 만남으로 마음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

문해력을 키우는 작가와의 대화부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까지, 고운삼봉도서관은 이번 여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배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여름방학. 도서관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길 바란다.

완주군
도서관 지도

삼봉공동육아나눔터 요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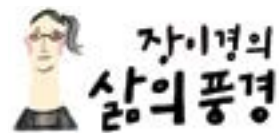
- 일시_ 2026. 7. 23.(목) 16:00~18:00
- 장소_ 2층 삼봉공동육아나눔터
- 대상_ 6~7세
- 문의_ 063-262-2698

작가초청 강연 「‘뭘 어때’로 사는 법」

- 일시_ 2026. 7. 25.(토) 14:00~16:00
- 장소_ 3층 강당
- 대상_ 청소년~성인 50명
- 강사_ 오은 시인
- 접수 및 문의_ 063-290-2285

여름독서교실 운영

- 일시_ 2026. 7. 29.(수)~31.(금)
초등 4~6학년 10:00~12:00,
초등 1~3학년 14:00~16:00
- 장소_ 3층 문화강좌실
- 대상_ 초등 4~6학년 12명 / 초등 1~3학년 12명
- 접수 및 기간_ QR 접수 *선착순 마감
- 문의_ 063-290-2652



비봉면 염암마을 남전자 할머니 이야기

여든이 지나서야 꽃을 피웠네

비봉면 염암마을 끄트머리에는 몇 해 전 전주에서 이주해 와 나무집을 짓고 살아가는 지인이 있다. 이 지인 덕분에 나는 행정명인 염암마을보다 ‘소금바우’라는 옛 이름이 더 익숙하고 정겹다. 실제로 마을 뒷산에 ‘소금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어, 마을 어르신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을 소금바우라고 불렀다. 새로 터를 잡은 지인도 이 옛 이름이 꽤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소금바우 초입, 흰 울타리가 둘러쳐진 집이 남전자(88) 할머니의 집이다. 할머니의 앞마당에는 계절마다 소박한 꽃들이 피어나는데, 길을 오가던 이들이 이 꽃을 보느라 발걸음이 느려지곤 한다. 꽃을 좋아하는 끄트머리 나무집 지인은 종종 할머니의 마당에서 꽃구경을 하곤 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캐어 낸 꽃모종을 꼭 그의 손에 들려 보냈다고 한다. 그러면 끄트머리집은 또 자신이 키우던 꽃을 들고 가 할머니의 마당 한켠에 지긋이 놓아두었다. 마을의 시작점과 끝자락에 사는 이들이 서로의 마당에 심은 꽃을 주고받는 셈이다.

이 귀여운 거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동행하기로 했다.

내 몸뚱이 하나로 산 거야.

둘째 아이 돌잔치를 이 집에서 했다고 하니 꼬박한 터에서 60년을 살았다. 함께 사는 아들의 수고로움으로 15년 전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었다. 집을 두르고 있던 높은 담을 허물자 온빛이 마당에 들어왔다. 혼자만 보는 꽃이 아니라 길을 오가는 온갖 존재들을 위해 꽃을 피우는 남전자 할머니. 여든이 지나서야 꽃을 피운 삶의 이야기다.

“나 고생한 거 말도 못혀. 동네 사람이 다 알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 웃음이 너무 맑아 고생스러웠던 세월이 선뜻 떠오르지 않다가도, 투박하게 마디가 굵어진 손과 잔뜩 굵은 허리를 마주할 때면 그제야 지나온 시절이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용진읍 지동리 6남매 중 귀한 딸로 태어나 큰 애기 될 때까지 금이야 옥이야 커서 나부대기만 했지, 일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었다. 24살 동짓날에 어우리로 시집와 25살에 첫아기를 낳았다. 그 뒤로 두세 살 터울로 6남매를 낳았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 오로지 할머니 혼자 몸으로 돈을 벌었다.



“애들 아버지는 참 모진 사람이었지. 그래도 어찌됐어, 결국 내가 선택한 삶이지. 시집와서 부터 오로지 내 몸뚱이 하나로 산 거지. 안 해본 거 없어. 땅이 없으니까 농사지을 수도 없고 전주 모래내 시장, 봉동장, 비봉장, 고산장, 안밤실, 바깥밤실, 남봉 온 동네 안 다닌 곳 없이 물건 팔러 돌아다녔지. 묵, 복숭아, 달팽이(다슬기), 그때그때 채소들 팔았지. 뒷산에서 도토리 주워다가 애들 보고 껌질 까라고 시켜, 빵아서 가루 만들어서 묵 만들어서 팔고 달팽이 한 3년 잡아서 팔 때는 내 별명이 물오리였어. 저그 앞에 어우리 냇가에 달팽이가 좋았어. 그거 잡는다고 하루 종일 물속에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네. 하루종일 물에 있다가 나오면 핑핑 돌아. 계속 달팽이만 찾고 잡으니까 모든 게 다 달팽이로 보여. 수제비도 보면 국물은 냇물처럼 보이고 수제비 뜬 것은 달팽이로 보였지. 달팽이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때 눈이 안 좋아지더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밥상 위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어무니 이것은 김치여, 이것은 감자여.’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리어카에 복숭아 상자 가득 싣고 팔러 다닐 때도 애들이 고산중학교 다니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남봉까지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갔지. 애들이 잘 컸어. 나한테 참 잘혀. 그것도 팔자인가, 남편 복은 없었어도 장에 나가면 희한하게 나한테 사람이 잘 붙어.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 나한테 사람이 다글다글 붙어. 시장서 물건 늘어놓고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물어보고 갔다가 도로 돌아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 인상이 좋아서 다시 왔디야.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전주에서도 마늘 같은 것 팔면 손님들이 우리 집 주소랑 이름을 꼭 물어봐. 그럼 전주서 여그까지 내외간에 찾아와서 꼭 사가. 그 집 아저씨가 자기는 절대 인상 안 좋은 사람한테는 물건 안 산디야. 내 얼굴 보고 내 물건 사는 사람 많았지. 몰라 나 이쁘다고 소문 났지(수줍은 웃음).”

동네 사람들, 애들한테 내 아이들 덕분에 살았지.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초가집 개량과 농로 확장 등 농촌 근대화 사업이 추진되며 시멘트와 벽돌 등 건축자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할머니는 이 시절 마당에서 벽돌을 만들어 팔았다. 모래, 자갈, 시멘트를 할머니가 이고 지고 마당으로 옮겼고 물동이 지고 집 앞 냇가로 내려가 물을 퍼 날랐다. 소금바우 벽돌집 시절, 모진 무게를 견뎌내느라 상해버린 몸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할머니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다.



왼쪽부터 금송화, 달리아, 이웃들에게 주려고 채송화를 뽑고 있는 할머니
고트머리집 이웃과 쪼그리고 앉아 꽃이야기를 한참 나눈다.

“이 동네 와서 내 몸으로, 마음으로 인심을 얻어서 그 힘으로 여태껏 살았어. 이 집 이사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이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마당에 여럿이 앉아서 지푸라기 엮어서 지붕 없는 것을 도와주네. 나는 돈도 없고 해줄 것이 없으니 몸으로 가서 도와줬지. 농사지으면 가서 셋거리도 해주고, 누구 일하면 거둬들여러 가고. 살아보니까 자고로 욕심 없이 살고 차별을 말아야혀. 없는 사람 팔시하면 안되야. 없는 사람이 항시 없이 살가니? 있는 사람도 항시 있는 것이 아니거든. 나는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해 죽겠네. 뭐든지 함부로 하면 안되야. 내가 힘들 때 동네 사람들이 잘 해줬어. 평생 이고 지고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러 다닐 때도 우는 모습 자식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 저 앞 전봇대 아래에서 혼자 울고 그랬지. 육남매 생각하며 버텼지. 애들혀. 내가 못 배웠으니까 우리 애들은 꼭 가르치고 싶었어. 우리 딸들도 이른 아침에 등교해서 늦은 밤에 돌아오니 마음이 안 좋잖아. 후라쉬 하나 들고 데려다주고 마중하느라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아. 잘 컸어, 애들이. 내가 노래를 좋아하거든. 젊어서는 내 별명이 이미지

였어. 어머니 고생만 했으니 이제는 실컷 노래하시라고 애들이 노래방 기계도 사다 놓았어.”

9년 전에 남편 떠나보내고 이제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다. 평생 자신의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보지 못한 남전자 할머니의 시선이 향한 곳은 꽃이었다.

“나 꽃 좋아혀. 없이 살 때는 아무것도 못 했지. 일단 알고 장사만 할 줄 알았지.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어. 애들도 나 보고 좋은 데만 쫓아다니라고 해. 내가 꽃 좋아하는 줄 아니까 아들이 어디서 꼭 꽃모종을 사왔싸. 철마다 심고 피우고 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지나갈 때 꽃 보느라고 천천히 가. 실컷 꽃 보고 가면 좋지. 옆에 점빵집에도 내가 골고루 꽃을 심어놓았어. 꽃만 보면 좋아. 계속 바라보고 싶어.” 그렇게 좋아하던 꽃을 여든이 넘어서야 활짝 피워냈다. 할머니의 곱고 애들한테 꽃마당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제4회 고씨네 별밤극장 현장

초여름 밤 빛속의 영화 축제... 아늑하니 더 좋았다!

싱그러운 초여름 밤을 영화로 가득 채우려던 계획은 세찬 빗줄기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빗소리는 이내 완주미디어센터를 가득 채운 관객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한 편의 영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난 6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이튿날인 20일 오전 2시까지, 완주미디어센터에서 무박 2일로 열린 '제4회 고씨네 별밤극장'이 우천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우천으로 실내 전환... "영화 몰입감 오히려 높아져"

당초 이번 별밤극장은 탁 트인 미디어센터 옥상에서 야외 상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내린 비로 인해 2층 실내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별은 볼 수 없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오히려 비가 내린 덕분에 색다른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인근 체육공원에서 뛰어놀던 동네 초·중학생들이 비를 피해 미디어센터로 모여든 것.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더해지면서 놀이방, 소상영관, 동아리방 할 것 없이 건물 전체가 시끌벅적한 축제 장소로 탈바꿈했다.

1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월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관객들은 준비된 공룡 탈, 꽃게 머리띠 등 개성 넘치는 분장 소품을 활용해 채치 있는 인증사진을 남기며 축제를 만끽했다.

저녁 8시, 유재욱 감독의 장편 영화 <산양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실내 상영관으로 무대를 옮긴 덕분에 스크린과 사운드의 집중도는 한층 더 높아졌다. 이어 상영된 단편 영화들(<4000BPM>, <겨울잠>, <자매의 등산>, <미미공주와 남근킹>, <안 할 이유 없는 임신>, <마루와 내 친구의 결혼식>)과 마지막 장편 영화 <잔챙이>까지, 다채롭고 탄탄한 라인업에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관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영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 "작품들이 하나같이 훌륭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들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천막 아래 빗소리 들으며 즐긴 '컵라면 타임'

이번 행사의 백미는 단연 영화 상영 중간에 마련된 '컵라면 타임'이었다. 관객들은 일제히 옥상으로 이동해 미리 설치된 천막 아래서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따뜻한 컵라면을 즐겼다. 야외 상영의 탁 트인 감성은 누리지 못했지만, 천막 밑에서 비 오는 초여름 밤의 운치를 나누는 또 다른 낭만적인 밤이 연출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완주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전주 등 관외 지역에서 찾아온 관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한 완주 주민은 "우리 지역의 이렇게 좋은 문화 행사를 꼭 자랑하고 싶어서 논산에 사는 친구를 일부러 불러 함께 왔다"며 뿌듯함을 전했다.

새벽 2시경 모든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이번 별밤극장을 기획·운영한 고씨네 조미정 씨의 사회로 영화감상 후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늦은 시간임에도 자리를 지킨 관객들은 서로의 감상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무박 2일의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했다.

완주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우천으로 인해 실내 상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함께 즐겨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세대와 지역이 미디어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년째 별밤극장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고씨네는 2021년부터 완주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주민 영화감상동아리다. 





행사 당일 내린 비로 인해 미디어센터 옥상 대신 2층 실내 상영관에서 진행된 별밤극장 참가자들이 영화에 집중하고 있다.

농촌주민생활서비스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소양면을 품고 농장에서 온 마을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첫발을 뗀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이 어느덧 5년 차 사회적 농장이 되었다. 소양면에서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먹거리, 여가문화 활동까지 폭넓게 책임지는 돌봄공동체로 성장한 더불어해봄은 농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 곳곳을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망을 뻗고 있다.

» 따뜻한 밥 한 끼와 안부를 나누는 날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쯤이면 소양면 곳곳에서 소양상생복지센터로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향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여러 어르신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원예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다육식물을 화분에 옮겨 심는 손길이 사뭇 진지했다.

“여기서 하는 만들기는 전부 다 재미있어.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예쁜 꽃을 가지고 멋진 작품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싶네.” 박웅남 어르신은 완성한 화분을 요리조리 살펴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수업이 무르익을 즈음 주방에서는 정성스레 지은 점심밥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이곳에서 동네 친구는 물론, 자주 못 만나는 윗동네 친구들과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가니까 좋다”는 이순례 어르신의 말처럼, 소양상생복지센터에서는 손끝으로 빚은 작품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한때가 매주 펼쳐진다.

» 마을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연대

소양면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훈훈한 자리를 마련한 곳은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출발한 더불어해봄은 5년째 소양면을 돌보는 농촌주민돌봄공동체형 사회적 농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법인 은혜의동산의 설립 취지에 따라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농장 인프라와 농업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치 상황에 변동에 따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보조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임평화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전 우선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보는 생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소양

면 곳곳에 퍼져 있는 통합돌봄 인력과 정책 자원을 계속해서 연결하자, 놀랍게도 우리의 뜻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농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여러 기관 및 단체와 손잡으며 통합돌봄 사업을 주축으로 삼은 것이 더불어해봄만의 특색이 되었다. 올해는 소양상생복지센터로 급식 장소를 옮기며 무료 급식 49명, 도시락 배달 45명 등 약 150명의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임 대표는 “센터가 소양면 소재지에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날 근처 관공서에서 불일을 보거나 장을 보실 수 있어 무척 수월해한다”며 장소 이전 이유를 설명했다.



임평화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농장 정보]

- 대표자 임평화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164-19



다육 작품을 완성한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만들기 수업이 끝난 후에는 정성스러운 한끼 식사를 즐겼다.

>> 이웃과 함께 서로 돌보는 내일을 그리다

더불어해봄은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사회복지법인 은혜의동산, 소양재가센터, 예은노인복지센터, 예순한의원, 소양면이장협의회, 소양농협, 소양신협 등과 새롭게 협력을 맺었다. 기존 소양면교회연합회, 기독교수양관, 소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양면부녀회 및 의용소방대와의 연대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임 대표는 “새로 연대하게 된 보건의료 및 복지 기관들과 함께 소양면 지역 어르신들을 이전보다 훨씬 폭넓고 체계적으로 보살피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 내 촘

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해봄은 올해 이후 농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끝나더라도 개인 후원자와 지역 단체의 참여를 독려해 무료 급식과 도시락 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농장 인증을 받아 체험농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듯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더불어해봄’이라는 이름처럼 지역 주민과 ‘더불어’ 나누고, 함께 살고, 서로를 돌보는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 더불어해봄의 바람이다.



양생원, 실물로 만나요!

삼례예술인마을 전시관 개관기념 초대전
양생원 완주하다

- 기간: 2026. 7. 18 - 10. 17.
- 장소: 삼례예술인마을 전시관

드디어 완주에서 양생원 전시가 열립니다.
귀염뽀짝 흥미진진 양생원 그림을
실물로 만나보세요. 두둥!!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완주한우협동조합 실무자들

완사넷,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 완주한우협 실무자들 역량 쑥욱!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완주한우협동조합 실무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운영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3일과 26일 두 차례 열린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이해와 실제' 교육에는 완주한우협동조합 실무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부터 조직 운영 방식, 실무에서 필요한 역할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와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배우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번 교육은 완주한우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조합사 교육'의 시작점이 됐다. 교육을 진행한 김종일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국장은 "찾아가는 조합사 교육이 실무자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각 협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으로까지 확대돼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현장에 더욱 깊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울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둥이 겹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_dera/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김종일 국장이 완주한우협동조합 실무자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가메오카 아키코 지음 | 이경숙 옮김 | 섬드레

최고의 양념



최근 이런저런 연유로 자주 음식을 만든다. 차림과 맛에 집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라면서 먹었던 음식들이 불쑥 떠오른다. 동네에서 솜씨 좋기로 이름난 엄마는 불편한 부엌에서 참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었다. 엄마=음식이라 떠올리는 것이 미안하고 언짢지만 내 기억이 그런 것을 어찌겠나. 매일은 아니라도 6~7가지 반찬과 아궁이 잔불에 구운 생선, 불고기, 뜨끈한 국이 차려진 큰방 풍경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만하면 '화목한 가족'이었다는 나름의 내막에는 밥상 풍경이 크게 차지한다.

음식 맛에 건주어 기억에 남는 것이 또 있다. 점점 자라는 아이들 방을 늘려 짓던 아빠 옆에서 꼬물대며 시멘트 벽돌을 만들다가 마당 한가운데서 라면을 끓여 함께 먹던 풍경은 액자 속 그림처럼 남아있다. 다섯 형제 중 서열 중간 포지션이 좋아하는 음식 앞에 앉을 확률은 높지 않은 터라 밥상 앞에서 보이지 않는 나만의 눈치 게임을 하던 진중함이 떠오를 때면 웃음이 난다. 이런 순간에 작은 심부름이라도 하게 되면 낭패다. 돌이켜 보니 의도된 심부름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유년 시절의 숙고는 지금도 아련하다. 놀이터였고, 돌봄 역할을 해 준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던 풍경에 대한 기억도 많다. 음식을 만들며 떠올랐으니 당연히 맛에 대한 기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디서나, 누군가와 '함께'였다는 사실이 떠올릴수록 선명해진다. 먹고, 먹으며 도란대고, 다음에 뭐 하고 놀까 작당하던 그 시절에서 맛과 '함께'를 소환시키고 싶다.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생각은 대부분 과거를 향해 있는 이런 상태가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런 연유인지 훈훈한 추억을 아이들에게 남겨줄 모든 의무가 엄마에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읽는 동안 양육자로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늑대 요리사가 과연 다람쥐 도련님의 입맛을 찾아주었는지, 발견하지 못한 양념이 또 숨어있지나 않을지 오늘 밤 이 책을 누군가와 '함께' 읽어야겠다.

곰 아저씨의 커피 가게



가메오카 아키코 지음 | 황진희 옮김 | 미래아이

최근 출간된 같은 저자의 책. 최고의 양념에서 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곰과 동네 친구들이 다시 등장한다. 반가운 친구들을 책에서 만나는 기분이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나만의 맛을 찾아야 함을 깨달아가는 냉정하고 고독한 맛의 세계를 향한 탐험기이다. 동시에, 턱을 괴고 커피 한 모금 들이키며 '맛의 세계는 혼자서 이룰 수 없어'라고 정답게 참견해주는 듯하다. 커피를 좋아하고, 특별히 직접 추출해 마시는 것을 즐기는 자리에 둔다면 더욱 정다운 책이 되지 않을까.

감나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 063-262-31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설레

#85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너무 심심하다...
너무



외로워...
누군가가 필요해.



아무나라고는
안했는데...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꺼지지 않는 불씨를 위하여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31) 방의경·양희은의 「불나무」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1970년대 한국 포크 음악에는 한 편의 시에 가까운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방의경이 만들고 양희은이 깊은 울림으로 불러 생명력을 얻은 「불나무」가 있다. 거둬 들어도 가사 내용이 잘 잡히지 않는다. 산꼭대기에 서 있는 불나무, 밤 바람, 불꽃송이, 꺼진 불마음, 어둠이 내리는 산길... 노래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상징을 던져 놓고 듣는 이가 자신의 삶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만든다. 그래서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불나무」를 만든 방의경은 1970년대 이화여대에 재학하며 활동했던 싱어송라이터였다. 그의 노래에는 당시 포크 음악이 지녔던 문학적 감수성과 시대의 고독이 깊이 배어 있다. 「불나무」 역시 유행을 겨냥한 대중가요가 아니라 시인이 언어로 그림을 그리듯 빚어낸 노래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나무'라는 이름부터가 그렇다. 이 낯선 상징 하나가 노래 전체를 끌고 간다.

노래는 산꼭대기에 홀로 선 불나무를 보여준다. "산꼭대기 세워진 이 불나무를/ 밤바람이 찾아와 앓아가려고/ 타지도 못한 덩어리를 덮어버리네." 산꼭대기는 높지만 외로운 자리다. 그곳에 선 불나무는 아직 활활 타오르지도 못했는데 밤바람이 덮쳐 온다. 이루어 보기도 전에 접어야 했던 꿈, 꽃피워 보지 못한 재능,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 인생에는 그렇게 타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불씨가 얼마나 많은가. 이 짧은 첫머리만으로도 노래는 삶의 안타까움을 응축해 놓는다.

그러나 이 노래의 중심은 2절에 있다. "덩그러니 꺼져버린 불마음 위에/ 밤별들이 찾아와 말을 건네어도/ 대답 대신 울음만이 터져버리네." '불마음'이라는 말이 참 미묘하다. 무엇인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 사람을 믿었던 마음, 세상을 향해 열려 있던 마음일까? 그런데 그 마음이 꺼져 버렸다. 더 애잔한 것은 밤별들이 말을 건넨다는 대목이다. 별은 희망이고 위로일 것이다. 누군가 다가와 "괜찮다"고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울음만 터져 나온다. 깊은 상처 앞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설명보다 눈물이 먼저다.

반복되는 질문이 이 노래를 오래 잊지 못하게 만든다. "오 그대는 아는가 불꽃송이여/ 무엇이 내게 죽음을 데려와 주는가를." 이 죽음은 분명 육체적인 것은 아니다. 꿈을 잃는 죽음, 감동을 잃는 죽음,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죽음. 노래는 무엇이 인간의 불꽃을 꺼뜨리는지를 묻지만 끝내 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질문은 듣는 사람마다 다른 답을 품게 한다.

3절에 이르면 노래는 한 폭의 수묵화가 된다. "산 아래 마을에도 어둠은 찾아가고/ 나 돌아갈 산길

에도 어둠은 덮이어/ 들리는 소리 따라서 나 돌아가려나." 젊은 시절에는 눈으로 길을 찾는다. 목표가 분명하고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눈보다 귀에 의지한다. '들리는 소리 따라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안의 양심과 기억, 신념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뜻처럼 들린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양희은의 목소리는 이 노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그는 노래를 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담하게 읊조린다. 그래서 더 슬프다. 울부짖지 않는 데도 가슴이 저리고, 분노를 외치지 않는 데도 시대의 상처가 들린다. 그의 음성은 산길을 혼자 걸어 내려오는 사람의 뒷모습처럼 오래 남는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씩의 불나무가 있다. 세월과 현실의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거의 꺼진 듯 보일지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작은 불꽃. 그 불꽃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불나무」는 그냥 포크송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밤에도 마음속 불씨 하나만은 지켜야 한다고 조용히 일깨워 주는 한 편의 서정시다. 반 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이 노래가 여전히 살아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산길을 걸어가지만 끝내 우리를 집으로 이끄는 것은 눈앞의 밝은 길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그 작은 불빛이기 때문이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려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 소식

지역 문화예술인과 제9585부대 장병이 함께한 7월 음악회

지완주문화관광재단이 지난 7월 10일 봉동읍 소재 106여단(충무여단)에서 군 장병 300여 명과 함께 '7월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음악회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장병들에게 활력을 전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타악 공연팀 '조이풀'의 힘찬 사물길놀이를 시작으로, 장병 공연팀의 열정적인

댄스 무대, 성악 앙상블 '아르코발레노'의 풍성한 하모니가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의 마지막은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이 장식했다. 합창단은 김민경 창작곡 '좋아좋아'와 김재훈 편곡의 '새들처럼'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보이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으며, 관객들은 공연 내내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따뜻한 감동을 함께 나눴다.



벼농사의 가장 큰 고비, 김매기

농/촌/별/국



차 남 호

오늘로 엿새째 김매기를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단 한 배미 예외도 없이 논풀이 잔뜩 올라왔다. 다른 이들이 짓는 논도 사정이 비슷한 모양이다. 아무래도 올해 기상 여건이 잡초 발생에 유리하게 작용한 탓이라. 그 가운데서도 모내기 뒤 날씨가 가물었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 고장 7월은 어차피 논풀이 쑥쑥 자라는 시절이니 김을 매줘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하긴 저 옛날처럼 호미 한 자루 들고 세 벌이나 김을 땀던 시절에 견주면 지금은 ‘그저 먹기’ 수준이라 할 만하다. 왕우렁이를 풀어 넣어 잡초를 먹여 치우게 하는 제초기법이 도입된 지 오래다. 무엇보다 관개시설이 잘 갖춰져 논물을 대기가 수월해진 덕분이다. 논물 수위가 높으면 그 자체로 잡초

밭아를 억제할 뿐 아니라 왕우렁이의 제초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날이 가물면 아무래도 논물 공급이 줄어 그만큼 잡초가 많이 올라오게 마련이다. 하루나 이틀, 물 관리를 빼놓아 논바닥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십중팔구 잡초가 고개를 드는 법이다. 고산권벼농사 두레 회원들이 짓는 논배미도 올해 그렇게 희비가 엇갈렸다. 날마다 물높이를 챙긴 규정 씨네 논은 다행히 잡초의 공격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 사정으로 제대로 물을 다스리지 못한 화수 씨네 논배미는 그야말로 ‘피바다’를 이루고 말았다.

“벼두레 회원들께 일손돕기 요청드립니다. 내일 저는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논에서 쉬엄쉬엄 피사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경부터 한두 시간이라도 함께해주세요. 일 끝나고 치맥 쓸게요.”

급기야 화수 씨는 단톡방에 긴급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여섯이 급히 달려와 피사리에 품을 내주었다. 화수 씨가 예초기에 매달아 쓰는 중경제초기로 피를 밀고 지나가면 나머지 인원은 미처 처치하지 못한 피를 매주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여럿이 함께 짓는 ‘공동경작답’도 사정이 비슷했

다. 여기서도 함께 짓는 경작자 모두가 나서 ‘공동제초’ 작업을 벌였다. 물론 한두 시간 작업으로 말끔히 해결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큰불은 잡은 셈이 되었다.

이때만 해도 그나마 아직 ‘폭염’이 나타나기 전이었다. 우리 논 김매기는 그 닷새 뒤에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폭염경보가 이어졌다. 오후 작업은 아예 엄두를 낼 수 없고, 오전에도 10시만 되면 쉼씨 30도를 훌쩍 넘어버리는 불볕더위. 그러니 이른 아침부터 고작 서너 시간을 넘길 수 없었다. 사실은 더위가 아니라도 그 시간이면 진창에 폭폭 빠지는 다리와 연신 굼뻐다 피기를 거듭하는 허리가 더는 버텨내지 못한다.

그렇게 엿새를 지나오니 올해 김매기도 이제 끝이 보인다. 김매기는 벼농사에서 가장 큰 고비라 할 수 있다. 콤바인과 건조시설이 도입되면서부터 김매기는 사실상 마지막 농작업 공정이 되었다. 그러니 그 노고를 위로하는 백중놀이가 사뭇 흥청거린들 어찌랴.

다만 아찔하다. 처음 귀농했던 15년 전 7월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김매기를 했던 기억. 이제 오후 김매기는 엄두를 못내게 되었으니 기후위기가 가속돼 몇 년 뒤에는 아침 김매기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어찌나. /비봉 염암마을

의회소식

“군민을 지키는 의회, 미래로 나아가는 의회”

제10대 완주군의회 출범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7월 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의회의 비전과 다섯 가지 핵심 의정 방향을 발표하며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성중기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0대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군민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며, 완주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오늘 군민께 드린 약속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10대 완주군의회는 핵심 의정 방향으로 ▲민생과 미래를 주도하는 경제 의회 ▲주민의 삶에 밀착

하는 안전한 복지 의회 ▲완주의 자존심을 지키는 군민 우선의 자치 의회 ▲군민의 뜻을 받드는 생산적 균형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정책 의회를 제시했다.

완주군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스마트농업 지원,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수소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환경 조성, 학생 통학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 의정과 책임 있는 예산·결산 심사, 정책 중심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완주마을이야기 완주공
완주 CB공동체

- 발행인 미디어공동체완주공협동조합
- 발행소 이용규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 대표전화 063-291-8448 • 팩스 063-261-8448
- 홈페이지 www.wandookong.kr
- 취재글 윤하나, 성다연
- 편집 장혜영, 이운영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청년디자인리빙랩 ‘지역 참여단’ 모집

완주산업단지를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청년디자인리빙랩 지역 참여단’을 모집한다. 이번 참여단은 완주문화선산단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형 활동으로,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로그램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 속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대상은 완주산업단지 근로자를 비롯해 거주자, 학생, 주부 등 완주산업단지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은 상시 진행되며 모집 완료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자는 온라인 설문과 투표를 통해 산업단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희망자에 한해 인터뷰와 의견 공유, 아이디어 워크숍(부트 캠프),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참여 상황에 따라 최대 2028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신규 신청 시 모바일 상품권과 위촉장이 제공되며, 온라인 설문·투표 참여 시 모바일 상품권, 아이디어 공모전과 워크숍 참여 시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상금 및 상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관심있는 사람은 아래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요양식당, 여름 맞아 별미비빔밥 계절메뉴 출시

완주군 고산면 고산미소시장에 위치한 소연식당이 여름철 입맛을 사로잡을 새로운 계절메뉴 ‘별미비빔밥’을 출시했다. 이번 메뉴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무더운 여름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 끼로, 신선한 재료와 정성스러운 손맛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다채로운 재료가 어우러진 비빔밥으로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 든든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소: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고산미소시장 304호

영업시간: 월~토 09:30~16:00

휴무일: 격주 일요일 정기휴무



한국게임과학고 ‘지식재산 다빈치프로그램’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가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움의 시간을 진행했다. 학교는 지난 7월 4일부터 19일까지 주말마다 전북지역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 지식재산 발명·특허교육 지역사회 공헌 다빈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발명과 특허, 지식재산(IP)에 대해 쉽게 배우고 직접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는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발명·특허 기초 이론을 통해 생활 속 지식재산의 가치와 아이디어 보호 방법을 알아보고, 이어진 메이커 교육에서는 직접 손으로 만드는 ‘목공 DIY 발명 교실’에 참여했다.

학교 내 전문 공간인 다빈치실에서 진행된 체험에서는 나무 재료를 활용해 다용도 수납함과 모니터 받침대 등 생활 소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며, 머릿속 아이디어가 실제 결과물로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한 참가자는 “특허와 발명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만들어보니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내 아이디어로 필요한 물건을 완성해보니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는 앞으로도 학교가 가진 발명·특허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산초 국동하, 제55회 전국 소년체전서 기계체조 4관왕

고산초등학교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고산초등학교 6학년 국동하 학생이 기계체조 부문에 출전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4개의 메달을 품에 안았다.

국동하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평행바 금메달을 비롯해 안마, 링, 철봉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개인 종합 3위에 올랐다. 지난 대회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전국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친 것이다. 어린 나이부터 꾸준히 훈련을 이어온 국동하 학생은 매일 흘린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성장해왔다. 이번 대회에서도 안정적인 연기와 집중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체조 유망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동하 학생은 “힘든 훈련도 많았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 뿌듯했다”며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6년 하반기 완주군 종합복지관 수강생 모집

완주군이 군민들의 평생학습과 취미·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군민과 완주군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강좌를 통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은 8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수강생 모집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종합복지관 063-290-2164로 확인 하면 된다.



완주 야간관광 프로그램 ‘완주나잇’ 참여 공간 모집



완주문화관광재단이 체류형 야간관광 프로그램 ‘완주나잇(Wanju Night)’에 참여할 지역 공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완주나잇’은 카페·식당·숙박시설 등 지역 공간에 공연, 체험, 미식 콘텐츠를 결합해 관광객이 밤까지 머물며 완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공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 예술인 매칭, 홍보 등을 지원하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 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공간으로, 20명 이상 수용 가능하고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청년 로컬푸드 식생활 자립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완주군이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2026 완주청년 로컬푸드 식생활 자립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혼자 식사하는 청년들이 완주 로컬푸드를 활용한 요리를 배우며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또래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에서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실습과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며,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립형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혼자 살아도 건강하게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은 물론, 함께 요리하고 식탁을 나누며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시간도 진행 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만 18~39세 청년 1인 가구 10명이며, 프로그램은 7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삼례 청년거점공간 ‘완충지대’에서 운영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https://naver.me/5UVsMejb>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심심한 완주 여기로 모이자!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7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망한 자세 구조대】
자세 불균형을 개선하고 코어와 신체 밸런스를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7월 15, 22, 29일 (매주 수) 오후 6시 30분, 7시 30분

【나를 표현하는 셀프 브랜딩 프로젝트】
메이크업과 이미지메이킹을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자신만의 매력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진행정보: 7월 18, 25일 (매주 토) 오후 2시

【나만의 버킷리스트함 만들기】
도자기 상자를 꾸미고 질문카드를 작성하며 나의 바람과 생각을 돌아보는 자기 탐색 도자기 워크숍. 관심 있는 사람은 방앗간 모임을 통해 함께 하자!

진행정보: 7월 23일 (목) 오후 6시 30분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청년 자산관리 아카데미】
금융 기초지식부터 투자, 재무관리까지 나만의 경제습관을 기를 수 있는 실습 시간이다!

진행정보: 7월 15, 22, 29일 (매주 수) 오후 7시

【플라워 비즈 키링 만들기】
알록달록 비즈로 꽃 모양 키링을 만들어 가방이나 소품을 나만의 감성으로 꾸며보는 체험.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7월 24일 (금) 오후 7시

【청년 네트워크 살롱】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고민을 나누고 싶을 때,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청년들의 쉼터 완충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완충지대에서 만날 수 있다.

진행정보: 7월 21, 28일 (매주 화) 오후 7시~9시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이서 청년거점공간 ‘이서나루’

【청년 자산관리 아카데미】
금융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투자와 재무관리 실습을 통해 올바른 자산관리 방법을 익히는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함께 해보자!

진행정보: 7월 21, 23, 28, 30일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

【디지털 드로잉 수익화 1기】
디지털 드로잉 기초부터 나만의 이모티콘 제작까지 배우고, 상품으로 완성해 수익화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정보: 7월 17, 24, 31일 (매주 금) 오후 7시~9시

【생활 속 피부 관리의 노하우】
내 피부 타입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피부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서나루에서 함께 참여하자!

진행정보: 7월 25일 (토) 오후 1시~3시

【모각zip. : 모여서 각자 집중】
각자의 공부와 업무를 함께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서로에게 동기 부여가 되어 목표를 완성하는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7월 15, 22, 29일 (매주 수) 오후 7시~9시

주소: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0 공취팔취도서관 5층
문의: 063-229-323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전체 거점공간 신청은 인스타그램 @wjyc_official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새로운 시작 7월, 하반기의 출발점!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7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토요극장>과 영화를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7월 18일 (토) 오후 2시	남자사용설명서	코미디	15세 관람가
7월 25일 (토) 오후 2시	로스트 인 더스트	드라마	15세 관람가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7월 28일 (화) 오후 7시	400번의 구타	드라마	15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Google AI 활용한 광고 제작 교육생 모집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 방법을 배우는 ‘Google AI로 끝내는 광고 제작’ 교육이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Google의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광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참가비는 2만 원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참여자와 전체 교육 일정에 모두 참석 가능한 신청자를 우대하며,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익힐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완주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크리에이터즈 역량강화 심화과정 운영

완주미디어센터에서 영상 제작 경험을 가진 완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크리에이터즈 역량강화 사업’ 심화과정이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촬영과 편집 기술을 넘어 콘텐츠 알고리즘 이해, 바이럴 콘텐츠 제작 전략 등 실전 중심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영상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SNS 활용 방법까지 배우며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완주군 청년정책을 알리는 청년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지역 정책과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교육은 7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회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만 45세 이하 완주군 청년으로, 영상 제작 및 SNS 활용이 가능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2026년 한국형 쿼스타트 교육 생 모집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2026년 한국형 쿼스타트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료 후에는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교육은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실무 중심 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은 서류접수와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교육생을 선발한 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메일(wanjakoyong@naver.com)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북산학융합원 063-263-0203, 0204, 0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림축제

더-하하하

2026.11. 20.(금)
~ 11. 22.(일)
완주군미래행복센터

나는난나다

생태놀이터

함께식탁

땡땡장터

공연

함께하는 곳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



더나은문화공동체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